



시 속에 그림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으니 기래원

밤새 창을 때리던 장맛비가 새벽에야 잠시 그쳤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었던 듯 창가의 목련나무에서 털매미의 노래가 울려납니다. 그리고 보니 요즘이 한창 털매미가 나올 때이군요. 그러나 이제 곧 털매미는 사라지고 대신 애매미와 말매미 소리가 그 뒤를 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참매미 울음소리가 한여름 햇살 아래 울려나겠지요. 비록 며칠 상간이지만 이렇듯 매미 소리 하나에도 엄격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이겠지요. 참으로 자연은 인간사의 회로애락에 상관없이 무정한 수레바퀴처럼 굴러갈 뿐입니다. 그 무정한 자연의 수레바퀴 위에서 오늘도 문득 한 수의 시를 떠올려 봅니다.

木末芙蓉花 나무 끝의 부용화

山中發紅坼 산 속에서 붉은 꽃 터뜨렸네

澗戶寂無人 개울가 오두막엔 적막히 인적 없는데

紛紛開且落 분분하게 피었다가 지네

왕유(王維: 701~761)의 <신이오辛夷塢>라는 시입니다. 전국 시대의 <초사楚辭>에서 신이辛夷는 원래 작약芍藥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당나라에 와서 목련木蓮의 별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무 끝의 부용화'란 곧 목련을 말합니다. 목련은 나무에 핀 연꽃이라는 뜻인데, 부용이 연꽃의 별칭이므로 목련은 또한 목부용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밖에 목련의 별칭으로 신신辛矧·후도侯桃·방목房木·목필화木筆花·북향화北向花·향불화向佛花·충신화忠臣花·영춘화迎春化 등이 있으니, 각각의 이름에 저마다의 의미가 담겨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시 시 얘기로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목부용이 산 속에서 붉은 꽃을 터뜨렸군요. 때는 이른 봄. 겨우내 얼어붙었던 개울이 풀리어 다시 졸졸 흐르기 시작한 즈음이겠지요. 아직 녹지 않은 얼음과 잔설이 응달진 이곳저곳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산 속 개울가에 오두막 한 채가 있습니다. 누구의 집일까요?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화전민·채약꾼·나무꾼·아니면 속세를 피해온 어느 고상한 은자? 물론 누구의 집이건 상관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상도 가능한 공간이지요. 아무튼 오두막은 지금 적막에 싸여 인적 하나 없습니다. 주인이 출타한 것인지, 아니면 낮잠이라도 자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요. 다만 그 모든 인간사에 아랑곳없이 목부용의 붉은 꽃만이 분분하게 피었다가 지고 있을 뿐입니다. 무정한 자연의 수레바퀴 위에서.

이 시를 읽고 있으면 한 폭의 그림이 절로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문자로 그려낸 한 폭의 그림. 그것도 불과 20개의 글자로. 그렇습니다. 이 시에서 보듯 왕유는 최소한의 글자로써 자연의 생생한 진면목을 그려내는 데 명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선禪적 묘오妙悟를 덧붙여 그의 시는 마치 고승의 계송偈頌을 읽는 것처럼 우리를 사색에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 소식蘇軾은 왕유의 시를 평하여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詩中有畫, 畫中有詩"고 하였고, 명나라 호응린胡應麟은 "태백(이백)의 오언절구는 절로 천선天仙의 구어인데, 우승右丞(왕유)은 도리어 선종禪宗으로 들어갔다. 예컨대... '목말부용화'와 같은 시를 읽어보면 자신과 세상을 둘 다 잊게 되는데, 만념萬念이 모두 고요하지 않다면 성률聲律(시) 속에다 이와 같은 묘언妙詮을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왕유는 성당 산수전원시파의 대표 시인인데 시만이 아니

라 글씨와 그림 또한 일가를 이루었고 음악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남종화(문인화)의 창시자로서 후세 화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찍이 안록산의 난 때 적군에 사로잡혀 정치적인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그 밖에는 대체로 평탄하여 상서우승尙書右丞이란 고관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벼슬보다 산수전원생활에 뜻을 두었고, 또한 불교에 심취하여 채식만 하며 훈채와 고기를 일체 먹지 않았고, 채색 있는 비단옷도 입지 않았으며, 30세에 부인과 사별한 후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자 마힐摩詰은 바로 <유마경維摩經>의 유마힐維摩詰에게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는 당시의 수도였던 장안 근처의 망천輞川 가에 별장을 마련하여 도우道友 배적裵適과 더불어 틈날 때마다 왕래하며 종일 금경을 타고 시를 지었습니다. 또한 장안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매일 수십 명의 명승名僧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현담玄談으로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그의 서재는 몹시 조촐하여 빈 방에 다만 다당茶(차술)·약구藥臼(약절구)·경안經案·승상繩床이 있을 뿐이었고, 퇴조退朝 후에는 향을 피우고 홀로 앉아 선송禪誦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즐겨 시불詩佛이라 일컫었던 그는, 비록 출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삶에서, 그 추구하는 바에서, 평생을 선정禪定에 노닐던 독실한 재가승在家僧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에 담겨 있는 회화미·선미禪味·선율미는 다방면에 걸친 그 자신의 예술적 재능과 고상한 생활태도가 배경이 된 것입니다. 나는 왕유의 <망천집輞川集> 오언절구를 몹시 좋아하는데, 편편이 외워보면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지는 시 속의 경관이 사무치도록 정겨울 뿐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지친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을 쓴 기래원은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국한문학 전공)했다. 현재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홍익대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에 《黃梅泉詩 研究》, 역서에 《東詩話》(精言妙選)《據梧齋集》《高宗辛丑儀軌》 등이 있다.